

한국 내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 대한 선교적 이해

The Missiological Understanding of Conflict regarding Islamic Food (Halal food) in South Korea

저자
(Authors) 권지윤
Jee Yun Kwon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2016.09, 97-127(31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9488>

APA Style 권지윤 (2016). 한국 내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 대한 선교적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97-127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9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 내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 대한 선교적 이해

권지윤*

I. 서론

II. 할랄과 하람

1. 할랄과 하람의 의미
2. 꾸란에 근거한 할랄 식품 & 하람 식품

III. 국내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

1. 국내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구조
2. 내부적 갈등
3. 외부적 갈등

IV. 결론: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선교적 이해

* 한국이슬람연구소 부소장

I. 서론

2016년 1월 한국의 여러 미디어는 할랄논쟁으로 뜨거웠다.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 식품단지 설립문제와 여러 지자체들의 할랄 식품산업 추진계획을 놓고 논쟁이 일어난 것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연일 미디어와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과 서명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렇게 큰 이슈가 되었던 할랄논쟁은 익산식품클러스터 안에 할랄 식품단지 조성의 백지화를 정부가 발표하고, 잇따른 지자체들의 할랄 식품산업도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되면서 그 막을 내렸다. 국내 할랄논쟁에서 특이한 점은 할랄산업이라는 것은 화장품을 비롯한 무슬림들의 일상생활 전반의 여러 가지 상품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에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익산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국내의 크고 굵직한 할랄논쟁의 대부분의 이슈는 식품과 관련한 것이었다. 2016년 8월 현재에 한국의 할랄논쟁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할랄논쟁을 돌아보며, 그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듯이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2016년 현재 약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현재까지 소수의 종교라 하여도, 전 세계적인 무슬림인구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할랄 식품과 할랄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꾸준한 팽창과 관련하여, 지난 1월에 일어난 할랄논쟁은 머지않은 시기에 또 겪어야 할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슬람의 할랄과 관련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들과 대응해야 할 것들을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한국에서 할랄논쟁이 식품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로 인해 할랄 식품을 둘러싼 국내 할랄논쟁의 갈등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할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그 양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의미의 할랄과 하람의 의미를 쭉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식품에 적용하여 설명할 것이

다. 더 나아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구조에 대한 바른 인식과 기독교 선교적 대응태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할랄과 하람

1. 할랄과 하람의 의미

이슬람에서의 할랄(*Halal*)의 개념은 단순히 음식이라는 하나의 문제에만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와 일상생활 등의 전 영역에 걸쳐 '허용'된 행동과 사물을 뜻한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은 하람(*Haram*)이다.²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규칙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생계수단, 의상, 타인에 대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할랄과 하람은 사실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슬림들의 삶은 할랄과 하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³

할랄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

- 1) 파르드(*fard*,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이것을 행하면 알라의 보상을 받지만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음
예) 예배, 단식, 성지순례
- 2) 만두브(*mandud*, 권장사항): 실천하면 보상을 받지만 태만할 경우에도 처

1 할랄로 규정된 것을 단순히 'permitted or allowed'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범위가 좁아진다. 왜냐하면 무함마드 사후 헤아릴 수 없는 신물질과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할랄의 의미는 '허용할 수 있다'는 permissible'개념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황중서, 『할랄인증, 황금 열쇠인가?』 (서울:한국문화사, 2015)

2 Ibid., 71-73.

3 Ibid.

4 Ibid.

벌을 받지 않음

예) 우무리(성지순례 기간이 아닌 시기에 행하는 자발적 순례), 추가 예배 및 단식, 지하드(Jihad 성전)

3) 무바흐(mubah, 법과 무관한 행위로 허용):보상이나 처벌과 관계가 없음
예)외식, TV 보기 등

할랄과 반대되는 개념은 하람(Haram)으로 이는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⁵

1) 마크후르(makruh 피해야 할 것으로 비난의 대상) -삼가해야 하지만 해도 처벌받지 않음

예) 흡연(최근 금지운동을 하고 있음), 게으름, 이혼 등

2) 하람(haram 금기)- 이것을 행하면 알라의 벌을 받음

예) 무함마드 그림, 조각 등 묘사, 간음, 돼지고기와 술을 먹고 마시는 것

2. 꾸란에 근거한 할랄 식품 & 하람 식품

할랄과 하람은 무슬림들의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무슬림들에게 식품에 있어 할랄과 하람의 적용은 어찌보면 당연한 원리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식생활에 할랄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무슬림들에게도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식생활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종교이며, 문화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무슬림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문화, 정치적 세계관 안에서 할랄 식품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에게 이슬람이라는 커다란 삶의 카테고리 안에서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슬림들에게 식품의 선택과 섭취에 있어 할랄과 하

5 Ibid.

람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앞서 할랄과 하람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식품에서의 할랄은 알라에 의해 소비가 허용된 음식을 뜻한다.⁶ 허용된 식품으로서 할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에 의해 규정된다. 1, 꾸란, 2, 하디스, 3, 키야스⁷, 4, 이즈마, 올라마⁸ 기본적으로 앞의 네 가지 원칙은 그 순서에 따라 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슬람의 할랄 식품에 대한 해석은 이슬람 신학의 각 경향과 학파, 조류 간에 내용이 다른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특별히 하디스가 이슬람의 각 종파와 학파간에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⁹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일부 무슬림학자들은 주장하기를 꾸란에 명시된 구절의 적용에 있어서도 정확을 고려한 융통성이 확보되었다고 한다는 점이다.

꾸란의 원칙을 고려하여 알 쾰라다위 (Al- Qaradawi)는 무슬림들이 할랄과 하람을 지키는데 있어 이해해야 할 11가지 실무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식품의 허용여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지면을 할애 하고자 한다.¹⁰

1. 기본적인 원칙은, 구체적으로 금지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알라가 창조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2. 율법에 부합하는지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직 알라의 권한이다. 인간은 누구든 그 신앙의 독실함이나 권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이러한

6 김정위는 이슬람에서 음식에 적용되는 할랄은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의 근원범주인 유태교의 경전이며, 성서에도 포함된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금지과 허용의 범주를 따르며, 무함마드의 언행록이 하디스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할랄 음식의 개념이 완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송도영, "한국 내 이슬람(할랄)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221.

7 꾸란에는 와인은 하람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꾸란엔 언급이 없는 맥주 샴페인 막걸리 등을 키야스라 하여 와인처럼 하람으로 한다.

8 이는 이슬람학자들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올라마는 이슬람 율법학자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이즈마란 이들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통해 결정된 해석을 말한다. 따라서 앞선, 1, 2, 3항의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슬람학자들의 동의 또는 합의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예: 취할 의도가 아닌 식품의 다른 목적 즉 맛을 위해 미량의 알코올은 사용할 수 있다.(0.5% 이내)

9 황중서, 『할랄인증, 황금열쇠인가?』, 75.

10 미안 리아즈, 무함마드 차드리 지음, 조영찬 역 『할랄 식품 생산론』 (서울: 한올아카데미,2016),18-21.

권한을 갖지 않는다.

3. 허용된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금지된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자기가 알라와 동격임을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4. 무엇인가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불결하고 유해하기 때문이다. 알라가 금지한 것들이 왜 혹은 얼마나 불순하거나 유해한지에 대해 무슬림개개인이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 어떤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 이유가 모호할 수도 있다.

5.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으며, 금지된 것들은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다. 알라는 더 좋은 대체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직 불필요하거나 없어도 되는 것들만 금지했다.

6. 금지되는 데 일조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 금지에 해당된다. 만약 어떤 것이 금지된다면, 그것을 이끈 모든 것들 역시 금지된다.

7. 율법에 어긋난 것을 율법에 부합한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알라가 금지한 것을 얕은 변명을 통해 적법화하는 것은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부합하는 것을 율법에 어긋난 것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8. 알라는 의도가 좋다고 해도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 허용되는 행위라 해도, 그것이 좋은 의도와 함께 할 때 만 그 행위가 진정한 신앙행위로 인정된다. 하람의 경우, 그 의도가 얼마나 좋든 그 목적이 얼마나 숭고하든 혹은 그 목표가 얼마나 높은 상관 없이, 항상 하람으로 남는다. 이슬람은 칭찬 받을 만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람에 해당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배격한다. 실제로, 무슬림은 목표가 숭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수단 역시 적절할 것을 주장한다. “결말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혹은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라”는 격언은 이슬람에서는 수용될 수 없다. 이슬람 율법은 어떤 권리든 오직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것을 요구한다.

9. 의심스러운 것은 피해야 한다. 명확하게 율법에 부합하는 것과 명

확하게 율법에 어긋난 것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이 영역이 바로 ‘의심스러운 것’에 해당한다. 이슬람에서는 의심스러운 것을 피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무슬림의 독실한 행동으로 여겨진다.¹¹

10. 율법에 어긋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금지된다. 이슬람 율법은 모든 인종과 종파, 성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중략).....

11. 긴요성은 예외 판단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슬람에서 금지되는 범위는 아주 협소하지만, 그러한 금지 규약의 준수는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이슬람은 생명의 위급성, 사안의 중대성, 혹은 인간이 직면하는 나약함과 능력의 한계를 간과하지 않는다.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

위에 제시한 실무지침은 식품에 대하여 꾸란에 근거한 이슬람율법적 해석이 그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식품에 대한 할랄과 하람의 구분 및 원칙이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것의 가장 우선적 근거를 꾸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의 허용 여부를 살펴볼 때는 반듯이 꾸란의 원칙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꾸란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1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할랄은 분명하며, 또한 하람도 분명하다. 이들의 중간에는 의심스러운 무엇인가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할랄인지 혹은 하람인지 분간하지 못할 수 있다. 누구든, 그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와 양심에 비추어 결백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을 얻게 될 것이다. 의심스러운 무엇인가에 연관된 사람은 누구든 율법에 어긋나게 되어 결국 금지된 것에 빠져들 수 있다. 이는 제한구역 근처로 사육동물을 방목하려는 자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며, 결국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다. 실로 알라가 금지한 것들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니라.”(Sakr, 1994) 불분명하거나 혹은 의심스러운 것들을 마쉬부흐라고 하며, 이는 학자들의 견해차이로 인한 경우도 있고 또는 식품의 미확인 원재료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치즈는 다양한 효소를 사용해 제조되는데, 이때 쓰이는 효소가 미생물을 사용했거나 혹은 할랄 도축된 동물을 사용했다면 그 치즈는 할랄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소가 만약 돼지로부터 유래되었다면 하람치즈이며, 비 할랄 도축동물로부터 얻었다면 의심스러운 것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규명되지 않은 원료로부터 획득된 유태제, 항곰팡이제, 기타 기능성 원재료로 제조된 유제품과 난제품 역시 무슬림이 소비하기에는 의심스럽다. (미안 리아즈, 무함마드 차드리 지음, 조영찬 역 『할랄 식품 생산론』, 21-22.)

원칙적으로 꾸란에서는 알라가 금지한 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식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기록한다. 다음의 구절들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꾸란 1:168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을 먹되,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실로 너희들의 적이니라.¹²

꾸란 2:172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 중에서 좋은 것을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꾸란 7:32 일러가로되 하나님께서 종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아름답고 깨끗한 장식을 누가 금기하느뇨 일러 가로되 이것은 현세에 살며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심판의 날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꾸란 10: 59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조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여 보았느뇨. 너희는 그중의 일부를 금기하고 일부는 허락하였더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느뇨,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꾸미느뇨.

앞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할랄과 하람을 결정하는 권한은 오로지 알라에게 있으며, 결국 알라가 금지한 식품이 아님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선 실무지침 1,2,3,7번 항목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실무지침 1번과 같이 무슬림들에게 모든 식품은 원칙적으로 이슬람율법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졌음을 무슬림들은 꾸란에 근거하여 주장한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부여한 것들 중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또한 하나님께

12 이 글에서 인용된 꾸란 구절들은 모두 최영길 역 『꾸란 의미의 해설서』(파하드 국왕청, 1987)에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감사하며 (실로) 그 분만을 경배하라(꾸란2장 172절).” 이슬람율법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진 음식에 대하여 꾸란에서는 할랄로서 규정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꾸란 구절들을 살펴보자.

꾸란 5: 4 허락된 것이 무엇이나고 그대에게 묻거든 그것은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라.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길들여진 동물이 너희를 위해 사냥하여 온 것도 허락된 것이거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라(후략)

꾸란 5: 5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허락되었으니 성서를 받은 자들의 음식이 허락되었고, 또한 너희의 음식도 허락되었으며(후략)

꾸란 5:6 그러나 바다의 사냥과 그 음식은 허락되노라. 이는 너희와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며, 육지의 사냥은 너희에게 금하니 이때는 너희가 순례 중일 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후략)

꾸란 6:118-119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고기를 먹되 그분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을 섭취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뇨. 그분께서는 금지된 것과 불가항력의 경우를 너희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노라(후략)

꾸란 6: 142 가축 가운데는 짐을 실을 가축이 있고 고기로 사용할 가축이 있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양식으로 주셨으되(후략)

꾸란 6:145 (전략)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후략)

꾸란은 할랄과 함께 하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식품을 명시한 구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식품의 허용여부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다음의 꾸란 구절들은 하람 식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꾸란 2:173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후략)

꾸란 5:3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가 아닌 것, 목졸라 죽인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야생이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에 제물로 바쳤던 것과 화살에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거늘 이것들은 불결한 것들이라(후략)

꾸란 6: 121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는 먹지 말라.13 그것은 죄악이니라.

꾸란 5: 90 믿는 자들이여 ! 독한 술과 도박, 그리고 우상숭배와 점괘를 건 화살은 사탄이 만든 술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니라. 너희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피하라.

위의 꾸란 구절들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하람 식품은 다음과 같다.¹⁴

-
- 13 동물을 도축할 때, 메카방향으로 짐승의 머리를 누이고 다비하법(이슬람식 도축법)에 따라 비스밀라(신의 이름으로)라 기도한 후,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세 번 외쳐 신에게 허락을 구한다. 곧바로 날카로운 칼로 목의 동맥을 끊은 후, 눕히거나 거꾸로 매달아 피를 모두 빼낸 다음 조리할 수 있다.
- 14 황중서, 『할랄인증, 황금열쇠인가?』, 71-81.

동물성식품-암돼지 수돼지, 개, 뱀, 원숭이. 사자, 호랑이, 곰 및 기타 유사한 동물 같은 발톱과 송곳니를 가진 육식동물, 독수리 및 기타 유사한 조류와 같은 발톱으로 먹이를 잡는 새, 쥐, 지네, 전갈 및 기타 유사한 동물이나 해충, 이슬람에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개미, 꿀벌과 같은 곤충이나 딱따구리와 같은 조류, 이, 벼룩, 구더기 및 기타 유사한 동물, 개구리 악어 및 기타 유사한 동물로 땅과 물에 모두 살아있는 양서류 동물, 노새나, 당나귀, 모든 독성 및 유해 수생동물,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육류, 싸우다가 죽은 동물, 제사에 바쳐진 동물, 동물의 피 또는 내장

음료-알코올, 독성을 수반하거나 해로운 음료

식품첨가물-동물성 식품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첨가물은 금기이다.

위에서 지적한 식품을 금기시하는 데는 종교적 이유 외에도 무함마드 당시의 문화나 기후 및 환경적 요인 등이 고려된 것으로서 그 나름의 금기시되는 이유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동물성 하람 식품의 경우 싸우다가 죽은 동물이나, 제사에 바쳐진 동물 그리고 동물의 피 또는 내장은 죽은 지 오래 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이나 동물의 부산물을 금기시하는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필자는 할랄과 하람의 일반적 의미를 살펴보고 할랄과 하람이 무슬림들의 모든 삶의 중심축에 있는 원리임을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원리가 무슬림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식품에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무슬림들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서 찾았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식품과 관련하여 할랄과 하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할랄과 하람은 무슬림들에게 꾸란을 근거로 한 삶의 원리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삶의 원리로서 적용되는 할랄과 하람은 무슬림들에게 오행과 같이 무슬림들이 지켜야하는 신앙의 의무가 된다.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 인하여 식품에 대한 할랄적용은 무슬림이라면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원리로서 할랄 식품의 주취가 되는 소비자는 무슬림으로 볼 수 있다.

Ⅲ. 국내 할랄 식품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

1. 국내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

이미 언급했듯이 할랄은 무슬림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서, 그들의 식품 문화를 할랄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일상적인 음식생활에 할랄을 적용하는 것은 식품을 단순한 먹거리만으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식품의 선택과 섭취는 사회와 사회관계 안에서 정의되며, 개인적인 감성경험의 차원에서는 기호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기호라는 것도 송도영교수에 의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 경험과 연결된다. 따라서 식품의 선별과 섭취는 종교와 세계관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¹⁵ 결론적으로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세계관을 근거로 할랄 식품의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자 무슬림 및 한국인 무슬림들은 그들의 식품의 선택 기호와 더불어 종교 문화적 전통에 따른 식품의 선택과 섭취에 있어 할랄을 지키기 위해 무슬림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식품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식문화 속에서 할랄 식품이 낯설고, 무슬림들이 증가로 인해 점차 한국 사회와 이슬람문화가 상호작용해 나가기 시작함으로써 할랄 식품문화가 정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안에서는 할랄 식품을 둘러싼 두 가지 직접적인 갈등구조가 관찰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슬림내부적 갈등이다. 무슬림내부적 갈등은 한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

15 송도영, “한국 내 이슬람(할랄)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 220.

가면서 할랄 식품문화를 유지하기위해 실천하는 행위가운데 표현되는 갈등들의 문제이다. 다만 한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이주자 무슬림들과 한국인무슬림들로 무슬림그룹이 둘로 나뉘이기 때문에 그 갈등양상도 두 가지로 나뉘어 관찰된다. 두 번째는 무슬림외부의 갈등구조로서 이슬람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비무슬림 집단이 무슬림 집단과 조우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과 관계된 문제이다. 이 세 가지 갈등양상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내 할랄 식품과 관련된 논의에는 어떠한 갈등과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내부적 갈등

1) 이주 무슬림들의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

1990년 대 이후 다양한 이슬람권 국가¹⁶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된 무슬림들은 그 다양한 출신 국가별로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종교적 의례를 지키고 적용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종교적 의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깊다.¹⁷ 1990년 한국의 노동시장 개방으로 이주 무슬림들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 되었을 때는 갑자기 많은 무슬림들이 다양한 이슬람권 국가로부터 유입되었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한국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 결여가 심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주 초기 노동자층으로 이주해온 무슬림들에게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리하던 것과 동일한 메뉴가 제공되어

16 한국 이주자 무슬림들은 출신 지역별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나뉘인다. Jeeyun Kwon, "The Rise of Korea Migration and *Da'wa*." Middle East-Asian Project (May,2014) Middle East Institute, America, <http://www.mei.edu/content/map/risekorean-islam-migration-and-da%E2%80%98wa> (accessed June 21, 2014).

17 송도영, "한국 내 이슬람(할랄)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 229.

이들의 한국체류 초기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할랄 식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조리할 수 없었다. 다음의 인터뷰는 그러한 예를 잘 설명하고 있다.

D씨 : ...옛날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할랄도 여기 많이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데 제일 힘들게 먹는 거였어요. 먹을 수 있는게 없으니까. 음식점을 가든 시장을 가든 아무 것도 없으니까.¹⁸

게다가, 무슬림들의 수도 적고, 이슬람은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낯선 종교였기 때문에, 할랄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희박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송도영 교수는 “돼지고기류의 음식이나 김치와 같은 강한 발효음식, 그리고 소주나 막걸리 같은 알코올음료는 처음부터 무슬림들의 기호와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자기부정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¹⁹ 1990년대 초기의 이주 무슬림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임금채불이나 불법노동자 단속 같은 경제적이고 법률적인 문제 외에도 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야 하는 식생활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초기에는 노동자 계층에만 국한되었었다. 왜냐하면 이주 무슬림들이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주 노동자층이 늘면서 이들은 각 회사의 인식개선과 배려로 이러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1990년대 초기에만 있었던 문제로 오늘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무슬림들이 정착하면서 결혼이민자 수도 늘어나고, 결혼이민자가 아니더라도 본국에서 가족이 이민을 오는 경우도 있기에, 그들의 자녀인 무슬림아이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이슬람적 문화를 익히기 위해 부모의 나라로 유학을 가기도 하지만 많은 무슬림

18 Ibid., 229.

19 Ibid., 228.

학생들이 한국의 국공립학교에서 한국의 비무슬림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할랄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국의 교육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소수학생으로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야만 한다. 한국의 교육시설과 교육현실 안에서는 이들 소수 무슬림학생(코슬림포함)을 위하여 할랄 식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중 일부는 학교의 급식으로 진행되는 점심식사를 하지 않거나 집에서 할랄 식품으로 만든 도시락을 싸오는 등의 아이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학급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²⁰ 이슬람율법을 강하게 지키는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남 아시아계 학생들의 경우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초 이민자무슬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한국에서 할랄 식품의 선택과 섭취를 위해 이슬람식 음식급기를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쉬운 일이거나 평범한 일은 아닌 것이다.

2) 한국인 무슬림들의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

본격적으로 한국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많은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1950년 발발한 6.25전쟁 시 한국에 파병된 터키군인들의 이슬람전파 활동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무슬림들의 세대교체가 일어났고, 이슬람이 한국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주 무슬림들의 증가로 한국내 무슬림 수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수는 상당히 소수라고 볼 수 있다.²¹ 또한 무슬림의 수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어도, 한국 거주 무슬림들의 인구는 한국전

20 Jeeyun Kwon, "A Study on The Methodologies of Islamic *DA'WAH* in The Non- Muslim World: Its Missiological Implications for Christians In Korea," *Ph.D diss.*,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2014, 9-11.

21 Ibid.

체 인구의 0.3%에서 0.4% 내외여서²² 아직까지 이슬람은 소수종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인이 무슬림으로 사는 것은 드문 경우가 된다. 특별히 이슬람식으로 식품에서 할랄과 하람을 구분하여 실천하는 것은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다. 아래의 인터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A씨 : …저는 고등학교때 (이슬람에)입교를 했는데…(중략)…기도하고 먹는게 가장 힘들어요

…먹는 거 가지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가공품이 본인도 모르게 다 들어가 있어요 . 라면부터 시작해서 무슨 과자나 빵까지 …(음식 성분 표기)믿을 수도 없어요. 그냥 표기 안 되었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빵을 만들 때도 소기름 돼지기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기에는 그런 점이 힘들어요. (할랄 금기를 말 그대로 지키려면)채소만 먹어야 되요.²³

B씨 : … 나는… 솔직히 말하면… 기도는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사실 먹는 거는… 그거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인 이슬람 교인 가운데 진짜 할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만약 할랄미트만 사가서 해먹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이죠, 친구들하고 연회석을 가면 다른 걸 먹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집에서만은 이슬람식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정신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인정할 만 해요. 그런데 한국사람은 그거 어려워요… (중략)…²⁴

더구나 한국에서의 식품소비 행위는 무슬림으로서 한국인이 할랄을 적용

22 Ibid.

23 송도영, “한국 내 이슬람(할랄)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 226.

24 Ibid.

하려 하여도 단순히 개인화된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한국의 식생활 문화가운데서 지켜져 온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동료, 사회적인 차원에서 식품소비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인데다, 한국문화와 낯 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의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식품소비의 할랄과 하람의 구분은 한국인 무슬림들에게는 무엇보다 민감하고 거론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한국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긴장과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²⁵

한국인 무슬림들이나 한국 거주 이주 무슬림들이나 이 모두에게 한국에서의 식품의 선택과 섭취에 있어서 할랄 적용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다만 집단의 성격과 모임들로 인해 한국인 무슬림들이 이주자무슬림들보다 식품의 선택과 섭취에 있어 할랄적용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안에서 이슬람교의 할랄과 하람을 무슬림 내부적으로 식품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전보다 많은 할랄마켓이나 식당이 생겼어도 여전히 한국에서의 할랄적용은 한국인들에게 낯선 것이며,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무슬림인구가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어도 아직까지 이슬람이 한국에서 소수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무슬림들이 유입되고 한국인들이 개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세계전체 이슬람인구 증가비율을 보았을 때 한국의 무슬림 증가와 이슬람 종교의 영향력은 앞으로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비무슬림 집단이 한국인들에게 낯선 이슬람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서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에 따른 반응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25 송도영, “한국 내 이슬람(할랄)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 226-29.

3) 외부적 갈등

할랄 음식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은 국내 거주 무슬림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식품금지인 할랄과 하람을 지키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였다면, 국내의 할랄 음식을 둘러싼 외부적 갈등은 국내의 비이슬람 집단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낯선 이슬람 집단과 조우하게 되면서 생성되는 문제로서, 국내 할랄 식품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갈등과 이에 따른 다양한 반응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갈등은 주로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단위의 기관에서 발표된 할랄과 관계된 행사나 식품단지 조성계획이 지역사회나 일부 기독교단체에 의해 환영받지 못하므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2017년까지 53억원을 들여 춘천·강릉·평창·양양에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숙박·관광 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9월 동아시아 할랄포럼과 내년 세계이슬람경제포럼 등 국제 행사도 유치했다. 그러나 도내 20여개 단체가 도청 앞에서 할랄타운과 이슬람 금융 투자 유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자체가 경제 논리만 앞세워 특정 종교의 확산을 도와줘선 안 된다” “한국도 유럽처럼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²⁶

또한 대구시 3개 구(중구·동구·달서구)와 인근 지자체(경북 군위군·칠곡군)가 농산품 생산, 제조·가공, 마케팅 등을 분업해 지역민이 만든 할랄 인증 제품을 동남아에 수출할 길을 열어 주려고 했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문화 체험 상품 개발, 할랄 한식당과 쇼핑점 개설 등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무슬림 관광객 4만5000명 유치, 생산 유발 효과 1380억 원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정부의 할랄 사업자로 선정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대구시는 “할랄 시장의 잠재 효과

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0277.html (accessed on 16, August, 2016).

가 크다고 봤으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 사업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²⁷ 연이어 발표되는 할랄 식품 산업 촉진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지난 1월 이후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할랄 식품 조성 산업 논쟁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였었다. 물론 국내의 이런 반응들이 결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기이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할랄 식품 산업, 할랄행사 육성방안이 국내에서만 발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해외의 예를 들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무슬림(아시안권, 중동권)관광객유치를 위해 할랄 식품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식품산업을 추진 중인데 말레이시아와 협력하고 있다.²⁸ 그 반대로 스리랑카, 영국, 미국 등지에서 일부 극우단체나 시민들이 할랄 식품 적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²⁹ 이들과처럼 할랄 식품단지 조성에 반대를 하는 시민들은 지난해 프랑스 테러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테러 중 90% 이상 이 무슬림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며 경제 논리를 앞세워 할랄 식품 조성을 추진 하면 한국의 이슬람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졸속 발표도 문제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슬람 공동체 전체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여 반대하는 태도도 미성숙하다고 하겠다.

앞서 예로 제시한 익산식품 할랄 단지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할랄을 둘러싼 외부적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지, 갈등에 따른 다양한 반응들은 어떤 것인지 그에 따른 갈등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박삼욱 서울대

27 Ibid.

28 Halal: Coporates expand in Asia
<http://epaper.chinadailyasia.com/asia-weekly/article-2101.html> 2014-03-14, KRISHNA KUMAR VR /China Daily Asia (accessed on 5, Feb, 2016).

29 <http://www.bbc.com/news/world-asia-21494959>
<http://www.cbn.com/cbnnews/world/2011/january/muslim-halal-food-sales-supporting-terrorism/?mobile=false> (accessed on 5, Feb, 2016).

교수)를 개최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400ha 부지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지로 최종 결정하면서 '09년부터 '15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원을 투입하여 식품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국내외 식품기업, 민간연구소, 연관 기업 등을 유치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익산식품 클러스터 내에 할랄 식품 단지가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갈등이 시작했다.³⁰ 단지 할랄 식품 단지가 조성되는 것만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할랄 식품 단지 조성계획 전체에 관한 소문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보여주었다. 익산할랄 식품 단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소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익산에 50만 평의 부지를 할랄 식품 단지로 공짜 임대해주고 건설비, 운영비도 전부 세금으로 지원한다. 한국인은 전면 취업 금지돼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오히려 이슬람 도축사와 종교지도자, 가족까지 100만 명이 입국할 거다.” 심지어 “이 도축사들 중 10%가 IS 테러리스트인데 우리 정부는 1인당 150만 원의 정착지원금까지 준다.”³¹

그렇다면 위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의 진실여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정부가 익산에 50만 평의 부지를 할랄 식품 단지로 공짜 임대해주고 건설비 운영비도 전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였다. 2016년에 완공이 되고 여기에 할랄 식품 단지를 둘 계획이 있는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에 나온 대로 50만평(165만²m²)이나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이 할애될 건데, 그 규모가 정확히 정해져서 발표된 사실은 없었다. 또 앞서 언급된 금전적 혜택도 단지 육성 차원에서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게 주는 것이 할랄 식품 기업에만 공급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50783&code=23111115&cp=nv> (accessed on 5 March, 2016).

3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50145 (accessed on 5 March, 2016).

두 번째 “한국인은 전면 취업 금지돼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오히려 이슬람 도축사와 종교지도자, 가족까지 100만 명이 입국할 거다.” 이것은 ‘할랄 식품을 만들 때는 무슬림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주장이 제기된 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JTBC 김문열기자의 취재 인터뷰를 살펴보면 사실여부를 이해하기 쉽다.

세종사이버대 이희열 교수: “(국내 할랄인증 기업이) 100~200개 기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농심이고요. 그다음으로 CJ, 대상 이런 기업들이 많이 다양한 품목들을 할랄로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하고 있죠. 그 공장에서 무슬림을 고용했다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할랄 식품 단지에서도) 무슬림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³²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관계자: “식품 클러스터에는 도축시설이라든지 그런 업종이 못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것(도축)은 입주 불허 업종에 들어갑니다. 식품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단순 업종, 혐오 업종이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려고”³³

세 번째 주장 “이 도축사들 중 10%가 IS 테러리스트인데 우리 정부는 1인당 150만 원의 정착지원금까지 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슬람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문목사는 아래와 같이 반론한다.

“실제로 2012년 1월 1일 부터,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32 Ibid.,

33 Ibid.,

2011년 9월부터 국제테러분자 등으로 의심되는 입국 외국인에 대해, 2011년 7월부터는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장기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들의 지문·얼굴정보를 확보하기 시작했다.”³⁴

여기까지 할랄 식품과 관련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다. 다수의 언론에서 이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며 찬성하거나 이슬람 종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의견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 이유나 혐오시설 반대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갈등 자체의 표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반대 여론을 일으키는 기관이나 단체, 시민들은 저마다 일회성행사를 해내듯 세미나를 열고 이슬람과 테러가 관련된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경제문제를 종교적 문제만으로 무리하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 모두가 한국 사회안에서 비무슬림 집단으로서 몇몇 집단이 낯선 이슬람문화와 조우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시점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첫 번째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처럼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숙하지 못한 대응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할랄, 할랄 식품,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으로서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34 김동문 목사 © <뉴스 M> 할랄단지 반대서명 다시보기대부분 사실 왜곡, 일부는 의도적, 악의적 가공 http://www.immigration.go.kr/imm_04/imm_040304/1175369_20904.jsp, <http://news.joins.com/article/5718034> (accessed on 15 August, 2016).

IV. 결론: 할랄 식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선교적 이해

이슬람은 무슬림들에게 종교이며, 삶이고, 삶이며, 문화이고, 문화이며, 정치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무슬림들의 삶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이슬람의 종교적 규례는 무슬림들의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논의의 시작은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에서의 할랄의 개념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에만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종교와 일상생활 등의 전 영역에 걸쳐 ‘허용³⁵’된 행동과 사물을 뜻하며 이와 대조되는 개념은 하람으로, 할랄과 하람은 허용된 것, 금지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또한 글자적 의미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의 삶의 전 영역에 실제로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이를 식품에 적용하니 무슬림들에게는 종교적 이유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과, 허용되지 않은 식품이 있었다. 무슬림들은 이를 할랄 식품, 하람 식품이라 하여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의 양태는 한국이 비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적인 생활을 쉽게 영위할 수 없다 해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비이슬람 국가인 한국에서 무슬림들은 할랄 식품의 선택과 섭취의 실천이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식품금지 즉 할랄과 하람 식품을 구분하여 식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무슬림들은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무슬림들이 증가한 1990년대 초기에는 할랄 식품 자체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1990년대 초기에도 할랄의 실천은 어려웠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현재에도 할랄 식품의 선택과 섭취에 있어 실천은 많은 제제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슬림들에게는 할랄식생활의 실천이 예전이나 현재나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전히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이다. 즉 오늘날에도 내부적으로 할랄식생활의 실천여부를 놓고 무슬림들은 갈등 중에 있는 것이다.

35 황중서, 『할랄인증, 황금열쇠인가?』 71.

외부적인 갈등은 한국 사회에 무슬림들이 증가하면서, 비무슬림 집단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비무슬림 집단의 이슬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객관적인 이해의 부족은 미성숙한 태도로 드러났고 이는 역으로 비이슬람 집단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무슬림들을 비롯한 기타의 집단과 사회적 마찰을 생성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마치 모든 비무슬림 집단이 국내 무슬림들에 대하여 이슬라모포비아적인 시각을 가진 것처럼 오해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특별히 할랄 식품단지의 조성과 관련되어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할랄 식품을 둘러싼 무슬림들의 외부적 갈등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내 무슬림들은 할랄과 관련하여 내 외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비이슬람 국가인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환경에 있어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할랄식생활 실천에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무슬림 집단이 성장하면서 비무슬림 집단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비무슬림 집단의 무슬림 집단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으로 여전히 한국 사회와 갈등 중에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질문 한 가지를 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들을 둘러싼 갈등에 기독교 선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접근함은 물론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함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할랄논의는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갈등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비무슬림 집단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부족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외부적 갈등을 극복하자고 필자가 할랄식생활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왜곡된 이슬람 이미지에 맞서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이슬람에 대한 이상주의적 이미지에 빠져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³⁶ 단지 기독교 선교적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갈등구조가운데 있는 무슬

36 한스 쾅지움, 손성현 옮김 『이슬람』 (서울: 시와진실, 2012), 59.

림들이 기독교인을 만남으로 할랄을 넘어서서 그들의 갈등을 풀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고, 외부적으로 비무슬림 집단이 무슬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오해와 왜곡이라는 미성숙한 태도에서 벗어나 이해와 포용이라는 성숙한 태도로 무슬림들을 만나기를 바란다.

이러한 바램을 이루기 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내외부적 갈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슬림들을 만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만남의 목적을 그들 문화 내부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할랄이라는 엄격한 율법을 넘어서실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들을 왜곡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의 갈등을 이해하려는 성숙한 태도로 우리 안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러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을 데이비드 보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회에게 말과 행위로 그리고 특정한 상태와 특정한 상황으로,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노에 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들 삶의 근본적인 재적응에 직접적으로 도전을 주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 선교의 범위와 활동이요,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기꺼이 영접하는 것이요, 그의 공동체인 교회의 살아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요, 지구상에 화해와 평화, 정의에 대한 그의 섬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법 아래 두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여하는 것이다.³⁷

여기서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증거자 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를 강요하여 할랄 금기를 당장 멈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간적 모든 한계와 결점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단순한 삶을 사는 복음의 증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초월적 실재의 표상

37 데이비드 보쉬 지음, 김병길,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420.

이 될 것이다. 무슬림들은 이것에 끌리고 아마도 이것에 관해 물을 것이다. 실제로 이슬람선교에 열매가 매우 적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하여도, 우리가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종교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접하여 살면서 그것을 왜 곡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열려있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엄청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선교명령은 증거라는 말로 표현된다.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는 열방에 가르쳐질 것이다. 너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눅 24:47-48) “너는 예루살렘, 유대 전체와 사마리아, 지구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1:8) 이 말씀들에 근거하여 증거는 메시지와 기독교의 이야기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살아있는 것이다.³⁸ EN에서 교황 바울 6세는 증거의 힘에 대한 좋은 예를 제시하였다.

그들 자신의 공동체 한 가운데에서 이해와 용납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들의 삶과 운명의 나눔을, 고귀하고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 그들의 결속을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을...한 가득 취하라. 덧붙여서, 그들이 현재의 가치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들의 신앙과, 보이지도 않고 감히 사람이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어떤 것 안에 있는 그들의 신앙과, 보이지도 않고 감히 사람이 상상해 보지도 않았던 어떤 것 안에 있는 그들의 소망을 단순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다함께 주위에 발산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이 무언의 증거를 통해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억누를 수 없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왜 그들은 이러는가? 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며 누구인가? 왜 그들은 우리 중에 있는가? 이러한 증거는 이미 복음의 고요한 선포이며,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복음화의 초기행위를 가지게

38 스티븐 B. 배반스, 로저 P. 슈레더 지음, 김영동 옮김,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7), 696-98.

된다.(EN 21)³⁹

이러한 증거자의 삶은 상대방에 대한 강요로부터 벗어나 이해와 포용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메신저가 곧 메시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갈등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배척하고, 이슬라모포비아적 시각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곁에 이웃으로 다가온 무슬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선교적 환경에 민첩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선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 우리 곁에 이웃으로 다가온 국내거주 무슬림들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 안에 복음이 증거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들 가운데 증거자가 되기를 바래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할랄논쟁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가운데, 무슬림들 스스로 할랄 금기를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돕는 것이며, 더 나아가 무슬림 집단이 성장하면서 비무슬림 집단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비무슬림 집단 중 하나로서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노력해야 할 선교적 태도이다.

39 Ibid., 702.

● 참고문헌

데이비드 보쉬 지음, 김병길,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0).

미안 리아즈, 무함마드 차드리 지음, 조영찬 역 『할랄 식품 생산론』 (서울:한울아카데미,2016

송도영, “한국 내 이슬람(할랄)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한국중동학회, 제32-1호, 2011 :217-249.

스티븐 B. 배반스, 로저 P. 슈레더 지음, 김영동 옮김,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7).

한스킹지음, 손성현 옮김 『이슬람』 (서울: 시와진실,2012).

황중서, 『할랄인증, 황금열쇠인가?』 (서울:한국문화사,2015).

김동문 목사 © <뉴스 M> 할랄단지 반대서명 다시보기대부분 사실 왜곡, 일부는 의도적, 악의적 가공

http://www.immigration.go.kr/.../imm_04.../imm_040304/1175369_20904.jsp, <http://news.joins.com/article/5718034> (accessed on 15 August, 2016).

Kwon, Jeeyun. “The Rise of Korea Migration and Da’wa.” Middle East-Asian Project (May,2014) Middle East Institute, America, [ttp://www.mei.edu/content/map/risekorean-islam-migration-and- da%E2%80%98wa](http://www.mei.edu/content/map/risekorean-islam-migration-and-da%E2%80%98wa) (accessed June 21, 2014).

Kwon, Jeeyun. "A Study on The Methodologies of Islamic DA’WAH in The non-Muslim world: Its Missiological Implications for Christians In Korea," PhD diss.,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2014, 9-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50783&code=23111115&cp=nv> (accessed on 5 March, 20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50145 (accessed on 5 March, 2016).

<http://www.bbc.com/news/world-asia-21494959>

<http://www.cbn.com/cbnnews/world/2011/january/muslim-halal-food-sales->

supporting-terrorism/?mobile=false (accessed on 5, Feb, 2016).

Halal: Coporates expand in Asia

<http://epaper.chinadailyasia.com/asia-weekly/article-2101.html> 2014-03-14,
KRISHNA KUMAR VR /China Daily Asia (accessed on 5, Feb, 20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0277.html
(accessed on 16, August,2016).

● ABSTRACT

The Missiological Understanding of Conflict regarding Islamic Food (*Halal food*) in South Korea

Jee Yun Kwon

The meaning of *Halal* in Islam is an object or action which is permissible to use or engage in their religious and daily lives in accordance with Islamic law. *Haram* has an opposite meaning and accordingly it is often described as a forbidden action which is unlawful and against Islamic Scriptures. The principles deriving from *Halal* and *Haram* are important for Muslims and they are obliged to abide by those principles in their daily lives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 Scriptures in Quran.

These principles are applied to the dietary life of Muslims as the meaning of food in their life represents not only the cultural peculiarities of the Islam but also the unique identity in their social relationship. For this reason, Islamic food (*Halal food*) can be expressed as the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of Muslims. Most of Muslims accept that the concept of Islam represents their distinctive religious, cultural, political and social life. Having *Halal food*, therefore, is quite understandable as a standard of life from a perspective of Islamic world. It permeates their everyday lives.

Along with unexpected increase of Muslim's population since the 1990s in South Korea, Muslim's population reached more than 200 thousand including traditional Korean Muslims who were born and grew in South Korea. These Muslims in South Korea have tended to keep Islamic principles including *Halal food* although South Korea is not an Islamic country. Because of this tendency, these Muslims have experienced the conflicts between their Islamic principle and Korean standard of living based on its culture in respect of dietary life. These conflicts can be divided into two classifications i.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An internal conflict is resulted from Muslim's adaption process to Korean culture because Muslims likely feel difficult to adapt to Korean food and its culture. An External conflict is resulted from the circumstances where Muslims and non-

www.kcti.go.kr

Muslims encounter each other in Korean context given that non-Muslims likely do not understand *Halal food*.

With the rapid growth of Korean Muslim's population despite it being minority group, South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nounced a policy, particularly, regarding Islamic food. It has resulted in significant cultural complexity regarding Islam in South Korea. In fact, there have been external conflicts and social controversies after the policy announcement in January 2016. In respons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ecided to withdraw its policy related to Islamic food taking into account growing tensions resulted from external conflicts and social controversies thereby. Nevertheless, Koreans will continue to face these conflicts and social controversies given that Korean Muslim's population continues to rise.

In this context,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se conflicts from a perspective of Christian mission. In terms of Christian mission, we need to become a witness of gospel. As a witness of gospel, we can help them. In other words, we can assist Muslims to overcome their internal conflicts by inviting them to our life and sharing our food culture. In this way, the conflicts can be reduced, and as a result Muslims and non-Muslims can be more harmonized in terms of Christian mission without adversarial confrontations with respect to *Halal food*. All of this is possible through Christian mission when we become a witness of gospel.

- Keywords: Islamic food, Halal food, Muslims, Islam, South Korea, Mission, Witness, Gospel, Korean churches, internal conflict, external conflict.
- 키워드: 이슬람음식, 할랄 음식, 대한민국, 선교, 증인, 복음, 한국교회, 내
부적 갈등, 외부적 갈등

.....
 논문투고일 : 2016. 8. 25
 논문심사일 : 2016. 9. 10
 게재확정일 : 2016. 9. 17

www.kci.go.kr